



“안방서 꼭 첫승 신고”

“광주·전남, 첫 단추를 잘 꿰자”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23일 밤 안방에서 열리는 2006 삼성 하우젠 K-리그 후반기 첫 경기를 통해 화려한 골 잔치를 선보인다.

전기리그를 12위로 마감한 광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천적’ 울산 현대를 상대로 후기리그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이번 울산전에 박요셉과 남궁도 등 베테랑 선수들을 비롯해 정윤성, 이동식, 전광진 등 젊은 신예들을 앞세워 상대 골문을 공략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스피드 병장’ 정경호도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출격 준비를 마친에 따라 팀 전력에 든든한 힘

오늘 프로축구 후기리그 개막

광주·전남, 울산·대구와 격돌

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전년도 우승팀인 울산의 전력도 만만치 않다.

이천수와 최성국이 포진한 울산은 지난 8월초 열린 A3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을 회복한 상태다.

여기에 울산은 광주와의 상대전적에서도 최근 5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는 크게 앞서있다.

전기리그를 7위로 마감한 전남드래곤

즈도 같은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약체’ 대구FC와 맞붙는다.

전남은 지난 12일 열린 FA컵 8강전서 셀미르, 주광윤의 연속골로 대구를 2-0으로 격파하기도 했다.

전남은 특히 최근 ‘용병’ 셀미르와 산드로C 선수를 영입, 공격진의 전력이 보강돼 후기리그 첫 승을 자신하고 있다.

다만 김현수-이병근으로 이어지는 대구의 탄탄한 수비진이 다소 걸림돌이다.

한편 광주는 후기리그 홈 개막전을 맞아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월드컵 경기장 북문 광장에서 2003~2006 시즌 광주 상무 선수단(이동국, 조재진, 김상식, 김영철, 조원희 등)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첫골 사냥 나선다”

설기현, 내일 아스톤 빌라전 출전

지성, 찰튼전 선발 출격

영표, 셰필드와 홈개막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데뷔 무대에서 ‘주간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되며 만점 활약을 펼친 설기현(27·레딩 FC·사진)이 첫 원정길에 올라 마수걸이 골 사냥에 나선다.

설기현은 24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빌라 파크에서 열리는 아스톤 빌라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시즌 2차전에 오른쪽 윙 포워드로 출전할 전망이다.

그러나 레딩의 스트라이커 데이브 키슨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설기현이 4-4-2 포메이션의 투톱으로 깜짝 출격할 가능성도 있다.

레딩의 스티브 코펠 감독은 지난 19일 미들즈브러와 1차전에서 키슨이 다친 뒤 공격적 운용을 고심하고 있다.

공격수 트로이 리타는 후반에 조커로 투입할 카드이기 때문에 케빈 도일의 파트너로 마땅한 공격수를 골라야 한다.

설기현은 측면 윙 플레이에 능하지만 신장(184cm) 등 ‘하드웨어’로는 1선에서 ‘타깃 맨’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미들즈브러전에서 추격골을 어시스트한 설기현이 투톱으로 나선다면 득점 찬스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윙 플레이어로 나오더라도 프리킥 세트 플레이에서 키커로 나설 수 있어 골문을 겨냥해볼만 하다.

이번 시즌 한층 더 강화된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24일 오전 4시 더 밸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찰튼 어슬레틱과 첫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

이 경기부터 웨인 루니와 폴 스콜스의 출전 정지 징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박지성의 선발 출격은 확실적이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스콜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라이언 깁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돌리고 박지성을 왼쪽 측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무니, 스콜스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맨유-찰튼전은 유럽 출장길에 오른 팀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이 직접 관전한다. 베어백 감독은 박지성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 뿐 아니라 퍼거슨 감독 등 맨유 코칭스태프를 만나 박지성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표(29·토트넘)는 하루 앞선 23일 오전 4시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홈 개막전을 갖는다.

베누아 아수 에코토가 영입돼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옮긴 이영표도 베어백 감독의 눈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받아야 해!

22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6 요넥스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혼합복식 한국의 이용대-황유미 조와 전주범-김민정 조의 경기에서 이용대가 드롭샷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레이크힐스클래식 25일 개막

해외파 vs 국내파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어 가는 톨랭커들이 제주에서 열리는 2006 레이크힐스클래식대회에서 격돌한다.

25일부터 사흘간 제주 레이크힐스골프장(파72·6천392야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앞으로 4개월 동안 펼쳐질 하반기 투어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국내 최고 수준인 총상금 4억원이 걸린 레이크힐스클래식에서는 한희원(28·월라코리아)과 이미나(25·KTF), 재미교포 김초롱(22) 해외파와 신지애(18·하이마트), 송보배(20·슈퍼리어), 박희영(19·이수건설) 등

국내 선수 중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는 투키 신지애다.

지난 5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상반기 5개 대회에서 모두 ‘톱10’ 안에 들며 현재 상금랭킹 1위(1억4천400만원)를

한희원은 지난 5월 코닝클래식, 이미나는 지난 2월 필즈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서 ‘코리아 파워’를 이끌고 있는 선수들.

작년 10월 LPGA 투어 CJ나인브릿지대회 이후 10개월여만에 한국을 찾는 김초롱도 국내 대회 첫 우승을 노린다.

국내 선수 중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선수는 투키 신지애다. 지난 5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상반기 5개 대회에서 모두 ‘톱10’ 안에 들며 현재 상금랭킹 1위(1억4천400만원)를

달리고 있고 올 시즌 ‘위너스 클럽 멤버’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고등학교 졸업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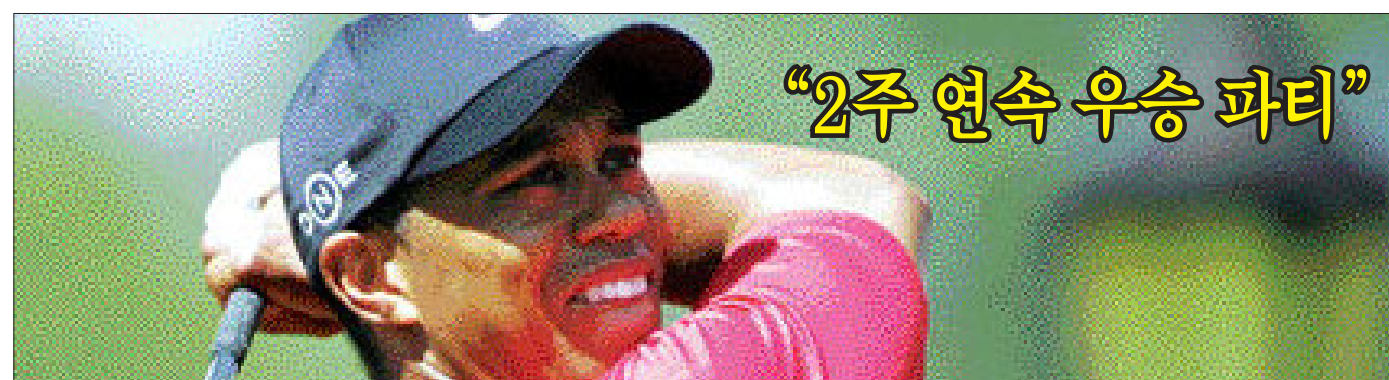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돌아온 송보배도 “남은 기간 소진된 체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고향 제주에서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밖에 올 시즌 첫 대회 휘닉스스파클래식 우승자 박희영과 5월 KB국민은행 스타 투어 1차대회에서 우승하며 신지애와 신인왕을 다투고 있는 안선주(19·하이마트)도 하반기를 여는 첫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약천후 등으로 대회 가 운연될 경우 일정을 축소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경기를 치르는 ‘에비일 제도’가 국내 대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며 우승자에게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재킷이 주어진다.

SBS골프채널이 전 라운드(오후2시~오후4시)를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주 연속 우승 파티”

PGA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개막...스트로크 방식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에서 압박한 우승을 거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주만에 또 한번 우승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360야드)에서 개막하는 월드골프챔피언십시리즈(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서 출전한다.

이 대회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 78명만 초청해 총 상금 750만달러를 걸고 컷오프

없이 나온간 스트로크플레이방식으로 순위권 거리는 특급 이벤트.

우승상금 130만 달러는 4개 메이저대회를 능가하며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프로골프투어에서 가려 뽑은 선수만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별들의 돈 잔치’다.

큰 대회만 골라 출전하면서 우승을 밥 먹듯 하는 우즈에게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은 우승을 작심하고 해마다 출전하는 대회 가운데 하나다.

특히 우즈는 이 대회에서 3연패

(1999~2001년)와 작년 우승 등 모두 네 차례나 정상에 올랐고 준우승 한 번, 공동 4위 두차례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둬 ‘안방’이나 다름없다.

시즌 중반까지 우즈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가 브리티시오픈과 PGA챔피언십 등 2차례 메이저대회에서 우즈에 참패를 당한 ‘원손지존’ 필 미켈슨(미국)의 ‘반격’도 관심을 모은다.

PGA챔피언십에서 공동 7위를 차지하며 상승세가 뚜렷한 ‘탱크’ 최경주(36·나이지리아)는 5년 연속 초청장을 받은 ‘별들의 전쟁’에서 상위권 성적을 올려 기분 좋게 귀국길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